

“비례대표 16번 안에...” 물밑 경쟁 치열

통합민주당(가칭)이 내년부터 18대 총선 후보 공모에 들어가면서 비례대표 입성을 위한 물밑 경쟁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역량 있는 외부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순번은 16번 정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대선 득표율 26.1%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통합에 따른 기존 지지층 결집과 맞물려 한나라당 견제권이 확산된다면 최대 18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다소 낙관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번을 시작으로 출수 번호에 배정될 ‘여성카드’로는 강금실, 김상희 최고위원과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박선숙

통합민주당, 여성 카드로 강금실·김상희씨 등 거론

손대표·정 전 장관·한화갑 전 대표 합류 여부도 관심

전 환경부 차관, 서영교 전 대변인 등이 당선안정권 순위 선점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다만 강 최고위원의 경우 당 일각에서 지도부의 수도권 출마 주장과 관련, 서울 구로를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지난 대선 때 중소기업인 3천명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박주봉 케이씨아이 사장 등도 거론되고 있고 소설가 황석영씨 등 손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손 대표와 정 전 장관의 비례대표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도권 동반 출마론이 강한 분위기다. 박상천 대표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고흥·보성 출마보다는 비례대표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 호남권에서 당 대표까지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아직, 통합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전 대

표의 비례대표 진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신당-민주당의 통합으로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예상된다.

신당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를 공천심사위와 별도로 구성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신당과 민주당 추천 몫이 적정 수준에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호남 등 신당과 민주당 출신이 결합하는 접전지역의 경우 내부 교섭정리를 위해 일부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로 물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 출신으로 신당 후보와 경쟁구도에 있는 광주지역 A씨와 전남지역 B씨의 비례대표 이동설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설

새정부 ‘인사·사업’ 호남 차별 노골화하나

이명박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호남 배제·영남편중 인사가 편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직 인수위가 PIFF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국비 700억원 등 총 기금 1천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이미 PIFF 위원장은 인수위 관계자와 만나 협의까지 한 상태다.

물론 PIFF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국내 영화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방육성 차원에서 PIFF의 확대 발전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인수위는 광주시의 최대 역

점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를 폐지하고 추진단의 기구를 축소기로 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일반적으로 대폭 축소하고, 부산지역의 영상산업을 위해서는 똑같은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 기금의 4배나 되는 금액을 조성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새 정부가 영·호남 차별을 노골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을 들일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심혈을 기울여온 지역 균형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과거 지역차별 정책이 국가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쳤는지 알아야 한다. 또다시 지역 감정의 골을 깊게 해서 어찌자는 것인가. 진정한 지역 균형과 안배만이 국민통합의 접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세계광엑스포’ 전담 법인 출범 기대 크다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광엑스포’ 행사를 전담하는 법인이 설립됐다. 광주시는 15일 광엑스포 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담 재단법인의 설립으로 광엑스포 준비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법인은 광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부지 조성, 전시설 설치 및 운영, 재원의 조달과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광엑스포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광엑스포 홍보와 부대사업,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도 맡게 된다. 전담 법인의 역할과 활동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내년 10월9일부터 한달여동안 열리는 ‘광주세계광엑스포’는 광주의 광산업 관련 기업과 단체, 관공객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 ‘빛고을’ 광주가 세계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이상을 유지해 관광수입 2천200억원, 생산·고용 등 부가가치 6천670억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광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광산업은 광주의 전략산업이자 대표 브랜드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감사원의 지역특화산업 감사에서도 ‘성공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9년여의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비약적 성장이다.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위해 재단법인까지 설립한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엑스포의 성공 여부는 세계 각국의 광산업 관련업체와 기업, 관람객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 ‘빛고을’ 광주가 세계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민주당, 학계인사 등 14명 영입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5일 학계와 법조계 인사 14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말 사면·복권된 이정일 전 의원도 이날 복당했다.

영입인사는 다음과 같다. ▲국회총선 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정병국 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 ▲이승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 ▲정병국 서울시립대 교수 ▲모세종 인하대 교수 ▲송면규 경원대 교수 ▲김도태 충북대 교수 ▲이길은 변호사 ▲오준화 변호사 ▲서영준 대한감정평가사협회 감사 ▲장선식 전 고려감정평가법인 대표 ▲임창규 한라대 교수 ▲이승교 대한한의학사회 감사 ▲김윤근 세평통상 회장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겨울 휴가를 보내기 위해 15일 KTX편으로 목포에 도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숙박지인 영암 호텔현대로 가기 전 미중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목포=이성선기자 sslee@kwangju.co.kr

MBC 새사장 엄기영씨 내정

MBC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앵커로 13년 넘게 활약한 엄기영(57) 전 앵커가 MBC 신임 사장으로 15일 내정됐다.

엄 신임 사장 내정자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신임 사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강원 춘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4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보도특집부에서 기자로 활약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DJ 영암서 ‘휴가 정치’?

통합민주당 출범과 겹쳐... 호남민심 결집 계기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15일 KTX편으로 목포에 도착, 2박3일간의 휴가 일정을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영암 호텔현대에서 1박을 한 뒤 이튿날인 16일엔 진도 벽파진과 해남 우수영 등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친 명량대첩 전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이번 호남행은 지난해 10

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참석 이후 4개월만으로, 신년 휴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근 통합민주당이 출범, 호남민심 결집의 계기가 마련될 상황이라서 김 전 대통령의 이번 호남 방문이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순창구 대표

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최근 김홍의 ‘갈의 노래’라는 소설을 읽었다”면서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 :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천한 신하가 죽지 않았다)를 거론하며 구여권 진영의 분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휴가지만 영암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지원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목포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의 지역구 무안·신안과 가까운 곳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정호영 특검, “李당선인 조사 여부 못정해”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검법사가 ‘BBK 명함’을 받게 된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는 이장준 전 대사의 비망록을 확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이장준씨가 출석 조사를 받으러 나와 ‘BBK 명함’을 받을 당시 상황을 묘사한 당시의 비망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지 형식으로 기록된 이 전 대사의 비망

록에는 2001년 5월 31일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당선인으로부터 ‘BBK투자자문주식회사, 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李明博(이명박)會長/代表理事(회장/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명함을 건네받은 경위가 비교적 소상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사의 법률대리인 박찬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1년 4월 17일에 LKe뱅크 회장에서 불러

난 당선인이 불과 얼마 뒤인 5월 31일 명함을 썼다는 것은 그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LKe뱅크 및 BBK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손을 안 떴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당선인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내부에서 결론 지은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바마 “北에 환상 갖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최근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오바마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오바마 의원의 외교위 발언록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간 단합과 공동 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인

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또 한미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자유 무역협정(FTA)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등 신성장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면 “유감스럽게도 한미FTA는 그같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대단히 중대한 한미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고 복원하기 위해 앞으로 이 당선인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재 감시’ 공익요원 늘린다

병무청, 문화재청서 요청

문화재 보호 및 감시 분야에서 북부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승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호경계의 필요성을 문화재청 뿐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금년도 문화재청이 요청한 공익요원 68명을 전원 배정할 상태다. 이들 공익요원은 문화재청의 직원들을 도와 문화재에 대한 방호경계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감시 분야에서 북부하는 공익요원 수가 전체 공익요원 4만6천494

명의 0.49%인 231명에 불과해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작년에 덕수궁과 선릉을 야간 개방했으나 방호경계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병무청에 공익요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확대 요청이 오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면서도 “중요 문화재가 있는 지역 출신의 공익요원 자원이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다들 힘겨워서 난리거늘...

지역구 2, 4석 확대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비례대표 최소 현행 유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위원장 박병성)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8대 총선에서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243개)를 2석 또는 4석 늘리는 복수의 확정안을 확정, 임재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획정위는 또 현재 56석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할 것도 건의했다. 획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행 299명인 의원 정수는 최소한 301명 또는 303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1안의 경우 전남지역 선거구 2개가 줄게 되며,

강진·완도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다. 강진·완도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함에 따라 강진을 인근의 영암·장흥에 붙이고 완도를 해남·진도에 붙인다는 안이다. 광주 광산구는 분구된다.

또, 2안은 전남지역 선거구를 1개만 감소시키기 위해 영암·장흥 지역구를 분할, 강진·완도·영암으로 조정하고 장흥을 화순에 붙인다는 안이다. 역시 광주 광산구는 분구되도록 되어있다.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일안을 채택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했으나,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보장과 의원자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는 문제에 이견이 있어 두 개의 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획정안에 위법이나 특단의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독신·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 화 회 사 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6	여 령 매 케 부 2200-628	다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